

복음의 빛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몇 년 전 나는 새로 완성된 어느 예배당을 헌납하라는 지명을 받고 남해에 있는 한 섬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몇몇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그 건물로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 건물이 매우 어두운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회원들이 그 예배당에 모두 앉은 것을 본 후 빛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독은 건물 관리인이 정오가 조금 지나서부터 헌납식을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되도록 건물을 점검했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헌납식을 시작할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빛이 없었습니다. 주변 가옥에서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점검을 모두 해 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지역 지도자들과 나는 헌납식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당 앞에 놓은 등잔불 빛만으로 헌납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는 이것이 교회 역사상 캄캄한 어둠 속에서 행하는 최초의 헌납식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나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빛을 주시어 예배당을 헌납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드렸다고 확신합니다.

연사들은 차례로 어둠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합창단은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사로서 나 또한 어둠 속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회중에게 함께 헌납 기도를 드리자고 부탁을 했을 때, 예배당 내의 빛이 갑자기 깜빡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축복에 대해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 나는 감격했으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빛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이 커다란 축복으로 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 사랑의 빛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예언자 모로나이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 모로나이는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리다. 내가 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

“인간에게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지시지 못하실 것이라. 저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친히 나타내어 보이지도 아니하시니라.”(이더서 12:6, 12)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시험이 있을 때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생활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많은 국법을 어겨 감옥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탈옥을 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얼마 후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참으로 어둡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한 자상한 감독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 젊은이는 그의 길을 바꾸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신의 영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서 교도소를 떠나려고 할 때, 문 앞에 그동안 그와 함께 노력했던 감독과 그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두 팔을 벌리고 커다란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빛나간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도와 주었던 감독과 가족에게 이 젊은이는 참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참으로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는 그의 와드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힘이 이 젊은이의 생활을 영적인 암흑의 생활에서 진리와 빛의 생활로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감독이 그 젊은이와 함께 노력하면서 보여 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곧 자비의 사랑입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명하시 사랑 곧 자비의 사랑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사람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 사람이 사랑을 품을진대 시온의 일꾼들이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고”(니파이이서 26:30)

우리는 또한 이 젊은이의 가족들이 많은 시련과 마음의 상처를 견뎌내는, 그리고 나서 그 시련이 끝났을 때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할 때 보여 준 신앙과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고전 13:1~8)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랑은 우정의 손길을 뻗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와드 대회 모임에서 나이 많은 한 형제가 한 가지 좋은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는 주일학교 회장인데 간증을 하도록 부탁을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12년간의 비활동 기간 동안 그는 생활의 문제들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극히 암담하게 생각되었을 때, 처음에는 가정 복음 교사가, 그 다음에는 감독이, 그리고 이어 와드 회원들이 우정의 손길을 뻗쳐 왔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보라

니파이와 리하이가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였던 것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신앙으로써요,

“보라 레이맨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암몬과 그 형제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참으로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이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기적을 행한 자는 모두 신앙으로 이를 행하였으며,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한 자가 없으니,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이더서 12:14~16, 18)

예언자 몰몬 역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며...

“대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좇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을 가질진대 마땅히 소망을 가져야 하리니,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함이라.

“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거니와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신앙이나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요,...

“또한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성신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려 하면 마땅히 사랑을 가져야 하리니...”(모로나이서 7:37~38, 42~44)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활동적인 회원으로 되돌아와서 아무런 비판이나 조건 없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회원들의 따뜻한 영을

느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회개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항상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된 제자들도 용서합니다. 우정의 손길이 뻗쳐지면 죄인들이 회개하며 사랑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예언자 몰몬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라.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좇으라. 모든 것이 실족하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니라.”(모로나이서 7:46~47)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고, 우리의 행위가 마음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기다리시는 구세주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할 때, 우리가 희망과 사랑, 곧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써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은 세대에 걸쳐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은 이 찬송가, 예수께 오라에서 울려 퍼집니다.

“예수께 오라 죄에 시달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가 우릴 편히 쉴 곳에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예수께 오라 어둠속에서 헤맬지라도 살피시네
그의 사랑이 어둔 밤에서 밝은 낮으로 인도하리.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 칠십인 제이 정원회가 새로 조직됨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인도해 나가기 위해, 대관장단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4월 1일과 2일에 열린 교회 제159차 연차 대회에서 열 두 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발표했다.

또한 대관장단은 서른 여섯 명의 총관리 역원으로 구성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조직을 발표했으며, 그중 스물 여덟 명은 현재 5년 임기의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때때로 다른 형제들이 또한 5년 임기의 부름을 받아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추가될 것이다. 서른 다섯 명의 총관리 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는 앞으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이나 일반 신권 소유자 중에서 부름받은 회원으로 확장될 것이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네 명의 새로운 회원들이 이번 대회에서 부름받았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들은 다음과 같다.

조 제이 크리스틴슨, 59세. 아이다호주 렉스버그에 있는 교회 대학인 릭스 대학 총장. 지역 대표, 멕시코에서의 선교사 및 선교부장, 교회 교육감,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원장 역임. 바바라 킬러 크리스틴슨 자매와 결혼, 자녀 6명.

더블류 유진 헨슨, 60세. 솔트레이크시티 변호사. 스테이크 부장 및 감독 역임. 지닌 쇼웰 헨슨 자매와 결혼, 자녀 6명.

제프리 알 홀런드, 48세.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지역 대표, 교회 교육감,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대학 학장,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코네티컷주 및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신학 연구원 원장 역임. 패트리시아 테리 홀런드 자매와 결혼, 자녀 6명.

말린 케이 켄슨, 46세. 유타주 헨츠빌 변호사.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감독 역임. 캐드린 부쉬넬 켄슨 자매와 결혼, 자녀 7명.

5년 임기의 총관리 역원으로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 부름받은 회원은 아래와 같다.

칼로스 아마도, 44세.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교회 교육 기구 지역 책임자. 지역 대표, 선교부장, 스테이크 부장, 감독 및 안데스 선교부 선교사 역임. 마야블 피네다 자매와 결혼, 자녀 5명.

벤자민 베리 뱅크스, 56세. 솔트레이크시티 사업가. 현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선교부장으로 재임. 스테이크 부장, 감독 역임. 수잔 컨즈 뱅크스 자매와 결혼, 자녀 7명, 양자 1명.

스펜서 제이 콘디, 48세. 브리감 영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역 대표, 오스트리아 비엔나 선교부 선교부장, 스테이크 부장 및 감독 역임. 도로디아 스페드 콘디와 결혼, 자녀 5명.

프로이드 델빈 하몬드, 56세.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릭스 대학 종교학 교수. 스테이크 부장, 감독, 볼리비아 코카밤바 선교부장, 스페니쉬 아메리칸 선교부 선교사 역임. 보니 에보나 셀러스 하몬드와 결혼, 자녀 6명.

맬콤 셋 켈슨, 64세. 솔트레이크시티 의사.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감독, 솔트레이크 성전 인봉자 역임. 마리아 데이비스 켈슨과 결혼, 자녀 5명.

리차드 피 린지, 63세. 교회 공보/특별 업무과 관리 책임자. 스테이크 부장, 감독, 스위스 선교사, 유타 대학 지역 사회 개발 국장 및 주 의회 의원 역임. 매리언 뱅거터 린지 자매와 결혼, 자녀 6명.

멀린 렉스 리버트, 63세. 솔트레이크시티 변호사.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감독, 동부 주 선교부 선교사 역임. 놀라 카혼 리버트 자매와 결혼, 자녀 6명.

호레이쇼 안토니오 테노리오, 54세. 멕시코, 하리스코 구아달라하라 기업가 및 자문. 지역 대표, 멕시코 토레온 선교부 선교부장, 스테이크 부장, 감독 및 지부장 역임. 마리아 테레사 드 테노리오 자매와 결혼, 자녀 3명.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의 자세한 약력과 사진은 4월 연차 대회 말씀이 실리는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에 게재될 것이다.